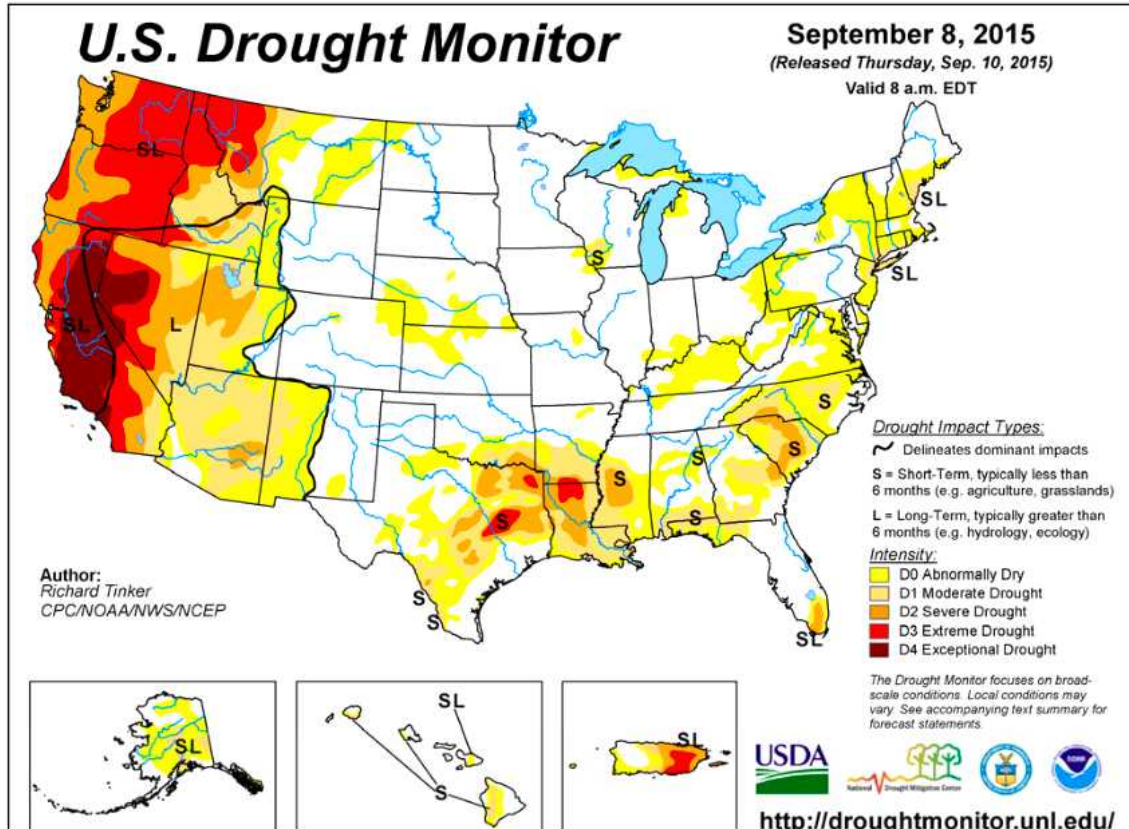


9월 1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7)

□ 미국 기후 현황(9/6~9/12)



전반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씨가 이어져대 여름작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캘리포니아와 북동부 지역에서 특히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가 두드러졌는데,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일대와 뉴 잉글랜드 내륙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적으로 10°F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 지역과 로키산맥 북부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고, 남서부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지난 9월 9일 Mokelumne Hill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주 동안 7만 에이커의 임야와 150여 가구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12일 Glenbrook에서 발생한 산불은 6만 에이커의 임야와 500여 가구의 주택을 불태웠다. 미국 동부 일대에는 비가 내렸는데, 걸프만 연안 지역과 대서양 연안 지역, 남동부 대평원 등에서는 2~4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대평원 북부에서는 평년보다 2~4°F 정도 기온이 낮은 날씨가 이어졌고, 뉴 잉글랜드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9일 사이 낮 최고기온이 90°F이상 오르기도 했다.

□ 농업 현황 요약(9/7~9/13)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한주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수확 등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평원 북부 지역과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씨가 이어졌다. 지난 한주간 평균 강우량은 평년보다 1.5인치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로리다, 미주리, 뉴욕, 텍사스 등에서는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 옥수수

전국적으로 지난 주말까지 황숙기(denting stage)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은 87%이며,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7%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앞선 수준이다. 전반적인 기상 여건이 좋은 덕분에 18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서 지난 한주간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13일 기준으로 성숙도도 35%의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 앞서는 것이며,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5% 뒤쳐진 수준이다. 주말까지 옥수수 수확률은 5%였으며, 작년보다는 약간 앞선 상황이지만,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4% 낮은 수준이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6%p 낮은 수준이다.

■ 겨울밀

북동부 일대의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워싱턴주에서는 파종작업이 22%p 이상 진전되었고 몬타나 주에서도 18%p 이상 진행이 되었다. 9월 1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는 9%의 파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p 낮은 것이며,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 면화

9월 13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열린 비율은 4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p 낮은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5%p 낮은 수준이다. 텍사스 남부에서는 수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9월 1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수확율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수치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3%p 높은 수준이다.

■ 쌀

9월 13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44%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알칸사스, 미시시피, 텍사스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작업이 10%p 이상 진전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2%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3%p 낮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12%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9/6~9/12)

■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 비가 왔는데, 중부와 북부에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남동부 지역에 내린 비도 최근의 가뭄을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2~30mm의 비가 내려 토양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으며, 이번 비로 농작업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폴란드에서는 10~40mm의 비가 내렸고,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10~60mm의 꽤 많은 비가 내려 지난 몇 주간 기승을 부렸던 더위와 가뭄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다. 남부 지역 전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구소련(서부): 서부와 남부 일대에는 비가 내렸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북부, 벨라루스, 러시아 북부 일대에서는 10~4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여름 작물의 수확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러시아 중부 및 남부에서는 평년보다 2~4°C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지만, 이렇게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려(강우량은 10~50mm) 겨울밀 등의 가뭄이나 강한 햇빛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러시아 남서부 일대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와 Yangtze 협곡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이덕분에 수확작업을 앞두고 있는 작물들의 생육상태는 좋은 편이다. 북동부에서는 옥수수과 대두가 무르익고 익고 있으며, 쌀 등 일부 작물의 수확작업이 시작되기도 했다. 북부 고원지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면화와 땅콩 등의 생육상태도 좋은 상황이다. Yangtze 협곡 서부지역에서는 25~1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벼 재배지역에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해 주었다. 북한에서는 50~100mm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서부 곡창지대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남한의 경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수주간 강우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뒤늦게 비가 내린다고 해도 작물의 수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태풍 Etau의 영향으로 Honshu 일대에 350mm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 호주: 서부에서는 3~15mm의 비가 내려 밀과 보리, 카놀라의 수확량 전망이 다소 밝아졌다. 남동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뉴 사우스 웨일즈 등에서는 토양 수분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확량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밀 생육에 적합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남부와 동부의 지난 한주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서부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2~3°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는 비가 내렸다. Parana 계곡 일대(Buenos Aires 북부와 Santa Fe, Entre Rio 일부)에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그밖의 지역에도 이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 일대에서는 기온도 평년보다 2°C 정도 낮았다. Cordoba 남부와 Buenos Aires

남서부 등에서는 영하 7°C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등 기온이 많이 낮아졌다. Chaco 북부에서는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 북서부 곡창지대에서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도 밤에는 기온이 10°C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 브라질: 남부 곡창지대 일대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수확작업이 지연되었으며, 밀 재배지역에서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Parana, Mato Grosso do Sul 동부, Minas Gerais 남부 일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Rio Grande do Sul 남부와 Mato Grosso 북부, Goias 등에서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변 비로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는데, Rio Grande do Sul의 곡창지대에서는 밤기온이 0°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Mato Grosso 동부와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9월 15일에는 대부분의 파종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